목포·무안·순천 '베드 타운'…영암·무안·광양 통근자 最多

호남통계청, 전남 22개 시·군 취업자 유·출입 현황 분석

목포 취업자중 거주지내 출·퇴근 73.7%…유출률 최저

영암 10명중 4명이 다른지역서 출·퇴근…화순의 78배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목포와 무안, 순천이 신흥 베드타운(bed-town)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암·무안·광양 등은 역외 통근자 즉,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최근 전남지역 22개 시·군별 취업자 유·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포와 무안, 순천은 인구 유출입이 적고 영암·무안·광양 등은 역외 통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단위 생산기반과 공공기관 등 안정적 일터와 주거, 통근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다.

조사 결과 서남권 중심도시인 목포에 살고 있는 취업자 10만5300명 중 거주지, 즉 목포시내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7만7600명(73.7%)으로 비율만 놓고 보면 22개 시·군 중 가장 낮다. 거꾸로 영암, 무안 등 목포 이외 지역은 26.3%로 가장 높았다.

50여 기관·단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의 행정수도 무안도 전체 취업자의 23.6%, 숫자로는 2만3600명이 목포나 영암 등 역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천도 낮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잠을 자기 위해 순천으로 귀가하는 취업자가 18.7%에 달했다.

특히 행정수도 무안과 서남권 제1도시 목포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공생관계가 뚜렷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목포지역 전체 취업자의 6.9%가 무안으로 출·퇴근하고, 무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4.0%가 목포로 유출되는 반면 19.1%는 목포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는 중심도시, 무안은 행정타운으로서 상호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역외 통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암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소재지가 영암인 취업자 4만8300명 중 영암거주자는 60.9%에 불과한 반면 39.1%, 10명 중 4명은 영암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화순의 78배, 영광과 완도의 26배, 담양의 22배다. 전체 취업자가 많지 않은 반면 대불산단이나 삼호중공업, 농공단지 등 일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안과 광양도 역외 거주 통근자가 각각 21.8%, 18.6%에 달했다. 무안은 남악신도시, 광양은 즐비한 산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거주지 기준 고용률 상위 3곳은 신안(76.1%), 고흥(74.3%), 해남(72.6%), 하위 3곳은 목포(55.2%), 광양(55.3%), 순천(56.4%) 등이다.

최옥희 호남지방통계청 주무관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지역 고용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키 위해 지역별 유·출입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됐다"며 "군(郡) 고용률이 도시보다 높은 건 농어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담양 죽녹원서 남도 음식 성찬

다음달 26일~29일 '음식문화큰잔치'

남도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9월26일부터 28일까지 '남도의 맛, 건강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담양 죽녹원 앞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낙안읍성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담양 죽녹원 앞으로 옮겨 열기로 하고, 축제의 질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도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남도음식 전시관을 보강해 계절별 남도 건강음식을 소개하는 주제관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 전남지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맛에 맞게 개발해 전시한 남도음식 국제관이 신설된다.

그동안 보는 것으로 만족했던 전시음식을 관광객이 직접 시식하는 기회도 갖는다. 전남도는 전시된 음식을 친환경 대나무 찬기에 담아 소액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군 대표 음식 판매장터에는 1200명이 동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소량, 소액으로 판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산업화 차원에서 식자재, 식재료 등 기업 부스도 운영된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식재료와 도내 농공단지 등에서 생산한 주방용품 등 우수한 식자재를 축제장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른 축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회사·가족 등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담양 죽향문화 체험마을에서 '임금님 수라상' 체험이 진행되고, 관방제림 옆에서는 연인·가족 중심으로 '단체 오찬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전남 농촌 체험마을의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축제장으로 불러들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농촌체험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장과, 곡성, 순천, 보성 등을 잇는 1박2일, 2박3일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도내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도 축제장을 경유토록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1000여명이 KTX 전용열차를 타고 축제장을 찾아 남도음식만들기 체험과 함께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지자체 '복지디폴트' 압박 1면에서 계속

광주시는 조만간 있을 국감 등을 통해 현재 70~80%에 불과한 국비 부담비율을 최대 90%대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6%에 불과한 강진군은 지난 7월 기준으로 매달 1억3900만원씩, 연간 15억원을 지급해야하며, 그나마 재정사정이 괜찮다는 여수시도 매년 17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비에다가 기초연금까지 복지비 지출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복지예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야할 사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 자원봉사자 발대

2014광주비엔날레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8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재단 거시기홀에서 개최됐다. 김효성 사무처장과 각 실·부장들을 비롯해 100여명 자원봉사자들이 야외광장에서 2014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흥차 '청태전' 세계콘테스트 '최고금상'

장흥군이 복원에 성공한 한국 전통차 청태전(靑苔錢)이 2014 세계녹차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최고금상'을 수상, 세계 명차 반열에 올랐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세계녹차협회 주최로 일본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오차노사토 박물관에서 열린 '2014 세계녹차콘테스트'에서 장흥군이 출품한 청태전이 최고상인 '최고금상'을 받았다. 장흥 청태전은 세계녹차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지난 2008년 처음 참가해 '최고금상', 2011년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또 '최고금상'을 수상, 세계적 명차로 우뚝섰다.

8회째인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22점 등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60점이 출품됐다.

최고금상 수상작은 총 7점으로 한국에서는 청태전이 유일하고 나머지 6점은 일본 4점, 중국과 대만 각 1점이다.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장흥 등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1천년 역사를 지닌 전통 발효차로 지난 2006년 장흥군이 복원에 성공, 현재는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는 등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청태전은 찻잎을 쪄서 찧은 뒤 뭉쳐서 동그란 동전 모양으로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은 생김새가 엽전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돈차'로도 불린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포프모빌' 쏘울 교황청 간다

기아차, 방한위원회에 기증

'포프모빌' 쏘울이 교황청으로 간다.

기아자동차는 28일 최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에 탄 쏘울을 천주교 교황방한위원회에 기증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측은 교황청이 쏘울을 의전차량으로 이용한 뒤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을 듣고 기증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기아차는 교황방한위에 쏘울 3대를 기증할 계획이며 방한위는 이 가운데 2대를 교황청에 기증할 방침이다.

나머지 1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전시해 신도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황식 전 국무총리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가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의화 전 조직위원장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U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어 후임으로 김 전 총리를 임명하기로 했다"면서 "김 전 총리도 저와 함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기로 수락했으며, 정 의장은 명예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